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社說 河川整理의 急務

年中行事의 水害

一

今年에 들어서도 水害의 큰 것을 여러곳에서 當하고잇다。京江一帶의 水魔가 退却하기 始作햇는가 安心하고 잇슬 새에 漢江上流의 支流沿岸인 堤川、原州서의 慘害情報가 들어오고 南方 洛東江、萬頃川도 刻刻으로 增水中임을 報道한다。夏節만되면 年年 洪水가 나서 人畜과 田野와 家屋什物의 被害가 만허 一般人民은 年中行事가티 神經이 衰弱되어잇지만 人間外의 被害만 年年 數千萬圓에 達하는것이 事實이니 이러한 災害는 하루바비 最少限度로 해야할것이다。

二

當局에서는 이에 일즉부터 着眼한바잇서서 大正四年度以降 年額 四萬圓의 豫算을 計上하야 河川調査에 着手하고 大正九年度부터는 年額十五萬圓을 計上하야 改修豫定區域의 實地調査를 進行中 大正十四年 關東震災의 影響을 바다 다시 五萬圓으로 豫算을 縮少하고 豫定年限을 延長하얏슴망정 昭和二年度에는 改修豫定區域의 實測은 終了하얏다。그리고 連하야 昭和二年一月 河川令을 發布하야 將來의 治水及 水利에 影響을 與할만한 河川의 現狀變更을 抑止하고 同時에 重要六河川의 調査를 追加하야 昭和四年度以降 年額三萬圓의 豫算을 計上하야 第二期治水調査를 着手進行中이다。大正四年度以降 河川調査費만 百二十餘萬圓 測量調査濟延長 二千七百餘粁에 達하다함은 這間의 消息을 엿볼수잇지 안흔가。

三

그러나 이 調査의限이 길엇든 때문인지 治水事業은 그다지 進捗지 못하야 治水上 急施를 要한다고 擇한 六河川의 改修計畫은 總工費 四千八百四十萬圓으로써 大正十四年以降 十一個年繼續事業으로 實施中 追加豫算이 削減되어 總工費를 五千二百七十萬圓、事業年度를 昭和十三年度까지 十四個年의 繼續事業으로 延長하얏스며、저 完成하얏다고 자랑하든 洛東江의 一川式工事는 昨年水害에 그 工事의 相當部分을 暴露해 버렷다。그뿐아니라、窮民救濟土木事業으로서만 國庫의 補助를 바다 昭和六年度부터 總工費 二千四百餘萬圓의 豫算으로 着手한 十二의 直轄河川及 五十二萬餘圓의 豫算으로 着手한 七地方河川、昭和九年度부터 總工費 百八十九萬圓으로 着手한 六直轄河川의 工事及 百二十二萬餘圓으로써 着手한 二十七地方河川、昭和七年度부터 國費百五十四萬圓으로써 着手한 直轄河川及 國庫補助를 바다 七十三萬餘圓의 工費로써 着手한 十九地方河川의 工事는 아즉未完成의 것은 만타고 할지라도 沿岸住民이 安心하고 살程度에 잇는것이 적음은 年年 小許의 洪水로도 一大水亂을 演出하는것으로 알수잇다。

四

治水事業은 元來 雨量、河川의 勾配及 河床의 狀況等에 影響하는바 만흠으로 一朝一夕에될 것이 아니다。特히 洛東江과가티 森林에 森山이 적어 土砂의 流下로 河床이 노픈 곳의 治水工事는 容易한 일이 아닐 것이다。그러나 現代의 科學과 資本을 가지고는 못할것이 거의 업슬것이니 이것은 先進社會의 河川整理의 例로 보아도 알것이다。年年히 莫大한 人命과 財產을 損失하는것을 생각하다면 이러한 事業은 一日이라도 速히 完成할것이다。況그 事業이 他方 沿岸住民에게 賃金을 撒布할 機會를 줄수잇도록 한에라도 當局의 同事業促進을 望하는바다。

蘇聯軍擴은 防衛的 侵略目的은 都無

日蘇開戰說流行은 不可解라고

歸國中의 大田大使談

【敦賀電話同盟】大田 駐蘇大使는 十三日午前七時 海參威로부터 敦賀에入港한 歐亞連絡船사이베리아丸으로 歌子夫人令孃安江等을 同伴하고 森本敦賀市長等의 出迎裡에 上陸하야 同九時二十分 敦賀發 國際列車로 東上하엿는데 大田大使는 말하기를

駐蘇日本大使館에서 使用하는 蘇聯邦人이 게페우에게 拘禁된것은 途中에서 드럿다 自己가 莫斯科를 떠나기 까지는 衷心으로 非常한 好意를 表示하엿고 不滿을 사게한 行動은 하나도 업섯다 撤歸하든 途中에 이러한 事件이 發生한것은 自己도 저편의 眞意를 諒解하기 困難하다 現在 蘇聯國防人民委員長 보로쉬로프將軍은 自己의 歸國에 當하야 送別會席上에 일부러 나를 招請하야 「蘇聯은 決코 自國에서 擧事치 안켓다 閣下가 歸國하면 반드시 이것을 日本政府에 傳하야 달나」고 말까지 하엿든 것이다 大體 日本에서는 日蘇開戰說이 盛傳하는 模樣이나 무슨目的으로 戰爭을하지 안흐면 안될것인가 戰爭은그리 簡單히 되는것은 아니다 蘇聯邦의 軍備擴張은 他國의 侵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自國에서 能動的으로하는 軍備는 아니라고 思한다 (寫眞은 大田大使)

大田駐蘇大使의 報告內容注目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의 歸國命令을 接하고 歸國途中에 잇는 大田駐蘇大使는 十三日午後七時四十五分 東京驛着歸東하기로 되엿는데 外相은 同大使의 歸國을 마지하야 蘇聯을 中心으로한 國際情勢及 蘇聯의 極東政策에 對하야 報告를 聽取하고 東亞政策確立에 資할方針이다 最近 蘇聯側은 西伯利亞及外蒙의 軍備强化와 東歐에잇서 佛國과의 提携로 漸次 對日態度를 積極化하는 一方 國民政府의 北中懷柔工作도 漸次具體化하야 日本의 東亞政策의 積極化가 要望되여잇는이때 大田大使의 報告內容은 자못 注目되여잇다

蘇聯官憲又復 在留日本人拘引

【敦賀電話同盟】十三日朝 敦賀入港의 歐亞連絡船사이베리아丸이 齎來한 情報에 依하면 莫斯科大使館員及 海參威總領事館員이 蘇聯官憲에게 不法拘引되어 센세이숀을 捲起하고잇는이 때에 또 요지음 海參威在留日本人西本願寺輪番戶泉賢龍師 神戶辰馬物產林田武雄 旅館扶桑舍主人田邊武外 二名의 日本人이 突然 게·페·우의 家宅搜查를 밧고 그대로 拘引되엇는데 連續的인 蘇聯邦官憲의 不法壓迫에 在留日本人은 크게 激昂하고잇다고 한다

佛、波에 借款提供 軍備强化에 協力

가무란佛國軍事參謀總長 波蘭『獨裁王』을訪問

【와르소우十二日發同盟】佛國軍參謀總長가무란將軍은 十二日午前波蘭軍首腦歡迎裡에 와르소우停車場에 到着하야 直時教育總監시미그리將軍을 訪問하야 一時間以上私的懇談을하얏는데 가무란將軍今回의 訪問으로 佛國政府는 드듸여 波蘭政府에對하야 借款을提供하고 軍備强化에 協力키로되는듯하다

拓務省最終豫算省議

【東京電話同盟】拓務省에서는 十三日午前十時拓相官邸에서 最終豫算省議를 開하고 如左히 明年度豫算概算을 決定하야 計數整理를한後十五日大藏省에 提出하기로하고 十一時半 散會하엿다 (單位萬圓)

一、歲出總額 三、五〇〇
內新規要求總額 一、八〇〇
內譯의 主要한者는如左하다
一、滿洲移民二十個年百萬戶五百萬人移住計畫(初年度五萬人)移住에 要하는經費 九〇〇
一、南方經濟提携에 要하는 經費 三〇〇
一、移植民保護獎勵費 二〇〇
一、棉花緬羊 補助費 三〇

그리고 海外移住協會改組에 關해서는 海外拓殖委員會에 諮問中이므로 그答申을 기다려 拓務省에서 立案하기로되엇다

今井田前總監 下關經由着東

【下關電話同盟】前朝鮮總督府政務總監今井田淸德氏는 令子夫人及 池田元秘書官을 帶同하고 十三日午前七時三十分 關釜連絡船으로 下關에上陸하야 山陽호텔에서 少憩한後 官民多數의 餞送裏에同九時十五分發 特急富士로 向東하엿다

燃料國策問題

商、海兩相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小川商相은十三日 午前十一時 海軍省에 永野海相을 訪問하고 商工省이 主로되여 計畫을 進捗하고잇는 燃料國策의 具體的 方針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한後 本問題에 對한 兩相의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永野海相도 燃料國策方針에 對하여는 何等異議가업시 意見一致되여 同十一時三十五分 會見을 終了하엿다

無旅券日本人監禁

【上海十三日發同盟】昨年末蒙古入의 目的으로써 奉天을 出發한 奉天日滿强化聯盟本部長山本光治外 日本人 五名은 綏遠省 百靈廟를 通過한後 消息이 杜絕되어 安否가 念慮되여 오던바 當地官憲에의 公電에依하면 山本氏外五名의 日本人은 甘肅省蘭州附近을 通過中 旅券을 所持치안헛다는 理由로中國官憲에게 逮捕監禁된것이 判明되엿다 目下 鄭州日本領事館及南京總領事館에서 그即時釋放을 中國側에 交涉中인데 國民政府外交部當局은 右監禁事實을 否定하고잇다

夕刊後市況 十三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六七〇〇(不變)
鐘新 一六〇〇〇(不變)
日產 七八五〇(不變)
東新 一二一九〇(不變)
◆橫濱 生絲 後引◆
當限 七七一〇〇 先限 七五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四八〇 先限 六一八〇

內務省豫算 二億七千五百萬圓

【東京電話同盟】內務省에서는 十二日午後一時부터 內相官邸에서 最終豫算省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十二年度歲出豫算總額二億七千五百萬圓(新規要求一億一千百萬圓)을 決定하야 大藏省에 回付하엿다 明年度新規要求는 今年度의 一億四千八百九十萬圓에 比하야 三千七百萬圓이 減少되엿다

第八回씨베르會議

【哈爾濱電報】第八回國際[illegible]及 地方외에르會議는 十月一日부터 十一月十五日까지의 사이에 開催하기로되엿다

米、驅逐艦二隻 西班牙水域出動命令

【華盛頓十二日發同盟】米國政府는 西班牙內亂의 惡化에 鑑하야 十二日宋敎艦隊所屬의 驅逐艦二隻에對하야 西班牙水域出動을 命令하얏다 右二隻은 主力艦 오크라가마號에 代하야 米國人의 生命財產保護에 當할터이다

希臘獨裁를 脅威하는 共產黨議員續續逮捕

【哈爾濱】西班牙內亂을 導火線으로 歐洲政局의 危機는 再次發火點에 達하려고하고잇는 이때에 希臘에서 又復獨裁制가宣布되어 마침내 歐洲國際政局은 紛糾를 極하고잇다 西班牙政府軍을 支援하고잇는蘇聯은 希臘에도 손을뻐처 同國共產黨으로 하여금 新獨裁制에對한 顚覆工作에 熱中하고잇는것이 暴露되어 去七日同國共產黨系議員을一齊檢擧하얏다 그리고同國共產黨首領스타웨나츠氏는 目下瑞西에잇슴으로檢擧될듯하엿다 이에 共產黨과 最近緊密히 接近하고잇는 自由主義系議員카보스及 大學教授바로스氏와가튼사람도續續逮捕되고잇다한다

川越大使北上注目 蔣氏會見압두고

【上海十三日發同盟】川越大使는 荻原書記官等을 帶同하야 十三日午前十一時 上海를 出帆하는 大連丸으로 北中視察旅途에 올넛다 天津、北平、濟南等地에서 田代駐屯軍司令官、宋哲元氏等과 會見하야 日中各當局과 意見을交換한後 月末 上海에歸任할터인데 蔣介石氏의 懇望으로 九月十日頃 南京에赴하야 再會見을 하기로 되여잇다 蔣介石氏는廣西問題를 九月上旬까지에 解決하야 川越大使와의 會見에 臨하려는 方針이며 本會見交涉을 非公式으로 日本側에 通知하고잇슴으로 川越大使의 今日 北上은 蔣介石氏와의 折衝을 압두고 今後의 日中關係의 進展上 重大意義가 잇는것이라고 注目되여잇다

人事·集會

◆內田愛行氏(朝鮮軍參謀)新任人事次來社
◆金俊玉氏(松都高等普通學校長)上京人事次來社
◆羅昌燮氏◆朴衡根氏◆植松義丸氏上京途次來社

政府米買上石數 八十萬八千六百石

昨年十一月以降累計

【東京電話同盟】公定價格에依한 政府米買上 申込으로서 昨年十一月一日以降累計는 드듸어 十三日 八十萬石台를 突破하야 八十萬八千六百五十石에 達하엿다 全鮮米穀事務所取扱數는 合計一萬二千六百八十八石에 達하야 昨米別內譯은 如左하다(單位石)

八年產	七〇〇〇〇〇石四斗
九年產	三〇〇〇〇石四斗
十年產	七〇〇三石二斗
合計	八〇八六五〇石

自治行政問題로 內相、體驗談聽取?

【東京電話同盟】地方行政 特히 自治行政의適否는 即時 國民大衆의生活에影響을 及하는 問題임으로 潮內相은 國民大衆生活에 直接影響하는政治를 行함에 對하여는 여러가지로考慮하고잇는바 이에對하여는 地方官憲과 自治體에잇서서 直接事務에當하고잇는이들의意見을徵하야 이에基하야 地方行政의革新을 圖함이 新時代에適合한 政治를 行하는데가장必要하다는決論을엇게되것으로 今後機會잇는대로 市町村等自治體에잇서 自治行政에 直接當하고잇는 經驗家、篤農家或은 地方廳에잇서 第一線에서 直接 民政의指導에當하는이들과合席하야 其體驗에基한希望等을聽取하기로되엿다

白頭山探險隊通信

曉頭·高原의 殘月下 晩秋氣分의 幕營!

茂峰에서는 鳩孃의 慘劇에 一同驚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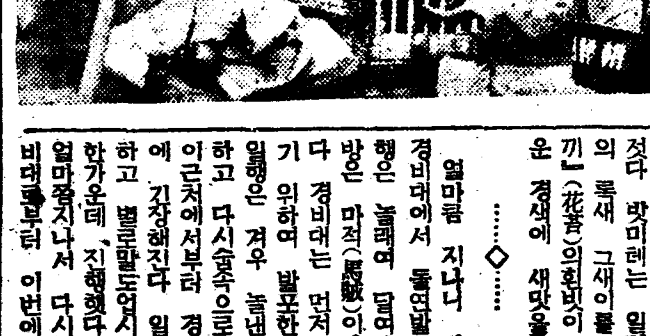
神武城에서 本社先發隊 李相昊 發電

본사의 백두산탐험대는 구일오전구시 농사동(農事洞)을출발한후로 전신전화나우편의 통신은 전혀끈허젓다 본사에서는 이에대신할통신방법으로 무산군대(茂山軍隊)의호의로 전서구(傳書鳩)를 사용키로 하엿섯다 그간두차례는 실패하고 제삼차로 신무성(神武城)에서 날린전서구는 무산까지 일백삼십오키로를 무사히날러 전서구통신을 성공하엿다 통신은 련락원으로 무산에 [illegible] 본사특파원 오쾌일(吳快一)군을 거처 본사에 타전한것이다

【十二日午前大時神武城發傳書鳩(茂山中繼)】십일일오전일곱시 무봉(茂峰)을출발한우리탐험단은 조혼날씨를타서 삼십키로의 험한길되는 도보행군 제이코-쓰를 무사돌파하야 작일오후 다섯시에는 신무성에 도착하엿다 이제는우리들이 등산중에잇지못할 대참사가잇섯든 날이다 전서구통신이 성공을 하엿든지 못하엿든지 그것도알바이못되나

어제무봉에서 전서구두마리에는 우리신문원고와 신문사진을 막송하고 경비대에서는 경찰서에 통신할것때문에 또두마리 합계 네마리의 전서구를 달리어띄니 네마리의비둘기는급방무산(茂山)을향하려고우리의군영지(露營地)상공에서방향을찾노라고날개를가즈른히대선회를하다날으고 잇슬때비둘기에게는 무엇보다도 강적이백두산에특유한수리(鷲)가한마리줄연숲에서나타나 무참히도 우리의 비둘기를 추격하는것이다 과연수리아패 비둘기라추격하는 그사간 비둘기 두마리는 마조(魔鳥)의 날카로운 발에채워가는것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을 궁자그대로 이광경을 눈아페보게된 우리들은내몸에닥처온일가티 모다뜻하지안흔가운데소래를 지르며 흥분하엿다 경비대측의스것과 본사측의스것네마리중에서 어느것이 피해를 당하엿든지 알수업다 경비대의수명은곳 수리가 자최를감춘숲속을 샅샅히 차저보앗스나 두마리의비둘기는 애처럽히도 그림자조차 차줄수업섯든것이다아! 가이업다 단일주야동안인 망정 잠시도 겻흘떠나지안코 모이와 물을 내손으로먹여주며 바람비에 그몸이 싀첩하지나 안흘가 애겨오든 귀여운 우리비둘기가 무참히도 몹쓸수리의 밥이 되엇단말가! 요행 그중의 한마리라도 무사히 우리의 중임을 다하엿는지?생각하 두새에처러울뿐이다。

……◇……



농사동 무봉간 삼십삼키로의 행정은 비와 진흙탕과 싸우면서 어려히 걸어온 우리탐험단의 고심이며 모엽시 전개된 고산식물의 꼿밧이 보여주는장관 밀림(密林)가운데를 헤치고 수해(樹海)의 저면(低面)을 잠행하는등의 과연 백두산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풍경들은 독자들에게 도달되엿는지? 비둘기의 안부는 가슴에 사무처 이치지안는다 하여든 수리에게채워간 두마리비둘기의 애처러운 조난을 조상하면서、우리는 무봉을 떠낫다 신무성까지 삼십키로의 행정은 거이 밀림지대이다 농사동 무봉간과 비교하면 림상(林相)이 웅장하기 다시 몃배나승하다 길엽는 숲속에 길을 헤치며 양장구곡(羊腸九曲)의 길을 더듬어 고원(高原)에 나서니 들국이니가타 산상의 요초는 벌서가을을 마젓다 밧이렌는 일면관목(灌木)의 록새 그새이를 수놋독꼿이「끼」(花蓆)의회빗이 겨우단조로운 경색에 새맛을준다

……◇……

얼마큼 지나니 전위(前衛)의 경비대에서 돌연발포하엿다 일행은 놀래여 달려가보니 이근방은 마적(馬賊)이나타나는곳이다 경비대는 먼저 위협을보이기 위하여 발포한것이라고한다 일행은 겨우 놀낸가슴을 안정하고 다시숲속으로 전진하엿다 이근처에서부터 경비대는 일시에 긴장해진다 일행은불평제제하고 별로말도업시 자못 긴장한가운데、지행햇다 얼마쯤지나서 다시 아페잇는경비대로부터 이번에는 계속하야 칠팔발이 나랑랑하는 총소리가들리엇다 대원일동은 모다 깜짝놀래여 얼골빗이변하야 정신업시서서 잇섯다 그곤총대도 말에 시렷든 짐을푸느라고 야단법석이다 웬일냐고 아페잇든경비대에게 무른즉 저쪽산림속에 사람이 잇는것갓다는것이다 이근처에서는 지나가는사람을 만나면 반다시 마적이라고 인정하고 총을 놋는다고 하니 그저 가슴이 울렁거릴뿐이다 얼마동안 멈춰서서 주위를정찰한다음계속 정돈하여가지고다시 행진을계속하야 신무성(神武城)에 도착하니 때는 오후 네시이다 이신무성은 사방산림에 에워싸인 광활한 초원(草原)이다 오늘은 시간에여유가잇서 천천히 저녁밥을먹고 로영천막에서 밤을 새우는데 밤새도록 몹시 치웟다 한난계(寒暖計)를 보즉 섭시오도이다 오전세시도 안되엿슬때 졉은원은 추워서 잠을못자고 뛰어일어나서 피어논 불엽흐로 모혀든다 하현(下弦)의 새벽달은 한번도 부월이 들어가엿이 업는 천고의심림(深林)을 희하게 비치줄뿐이다 오늘은 무두봉(無頭峰)까지 십팔키로를정복할차례이다

(사진은 동지에서 모이를비며먹는 전서구)

早稻田大學의 講義錄

秋季新學年 校外生募集

左記講義錄의 讀者는 모다 本大學의 校外生으로 한다

小學校卒業生이면 누구나

入學自由 (試驗不要)

詳細한것은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中等學校程度
- 中學講義 月一圓 前後期各一ヶ年半
- 商業講義 月一圓 一ヶ年半
- 高等女學講義 月一圓 一ヶ年半
- 電氣工學豫備講義 月一圓 一ヶ年

專門學校程度
- 政治經濟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 法律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 文學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 建築講義 月一圓三十錢 一ヶ年半
- 電氣工學講義 月一圓三十錢 一ヶ年半

內容見本 見本請求하실때는希望의講義錄을반드시쓸것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一三·電話牛込三二四五

失踪者만八十五名에 死傷者는百四十餘名

流失倒壞七百戶浸水二千七百戶

原州郡內慘酷한水害

【原州支局特電】 원주군(原州郡) 지방의 수해참상은 다음과갓다 ▲류실가옥 이백십구호 ▲도괴가옥 사백사십호 ▲침수가옥 이천칠백이십이호 ▲사망자 륙십팔명 ▲부상자 칠십칠명 ▲행방불명자 팔십오명 ▲피해자 경작면적 칠천정보 ▲방금 구제를 요하는 인원이 이만칠천명 이라한다

橫城、平昌郡도慘澹

江原道各地被害狀況

강원도경찰부장으로 부터 경무국에 보고된바를보면 십이일오후 두시까지 판명된 강원도내의 수재피해는 대개다음과갓다

▲人畜의被害 死亡原州郡四二 橫城郡一一 蔚珍郡一 計五三名 ▲負傷 原州郡二八 橫城郡一 計二九名 ▲行方不明 原州郡三 橫城郡一 計四名 合計八六名 家屋의被害 流失及全潰 原州郡三二七 橫城郡一〇一 平昌郡二 計三三〇戶 半潰 原州郡九八 橫城郡四九 平昌郡五 計一五二戶

사람이 익사하엿스며 전시민은 소학교와 도립병원에피난하엿스는데 자세한피해상황은 방금조사중이다

榮州地方水害

【榮州支局特電】 긔보=경북영주(榮州)의 수해는 교통의 두절로 자세한것은 아직 판명되지 안햇스나 십삼일 오전까지 판명된것만을 보면 이산면신암리(伊山面新岩里)와 장수면 반구리(長壽面盤邱里)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봉화군내성면 두촌

리(善化郡乃城面京村里) 에서는 가옥전부도괴 오호와 반분도괴 이호이며 침수 십오호이고 전답의 칠수도 륙천정보이며 제방삼십미돌이 끈허젓다한다

善山地方水災

【善山支局特電】 십이일부터 락동강(洛東江)이 갑작히 증수하야 이로말미암아 선산군 구미면 지산동(善山郡龜尾面芝山洞)농작에는 침수가옥 오호칠동(棟)농작물은 전멸상태를 보이고 잇다 산간지대의 교통은 전부두절되고 가튼동리 서겸식(徐謙植)의 장남 병한(炳漢)(七)은 락동강물에 빠저죽엇다 피해액은 아직 자세히모르겟다

蟾津江增水

【全南求禮支局特電】 련일나리기 시작한비는 십이일부터 홍수가되여 구례(求禮)일대는 물바다가되여잇스며 아직도 비는계속하고잇다 섬진강(蟾津江)은각각으로 증수하야 교통이두절되엿스며 농작물의 피해가만타

暗黑世界의 安東邑內

人命死傷多數

【慶北安東支局特電】 안동(安東)지방에는 십일일오후 다섯시부터십이일오전열시까지 평당(坪當)넉섬이상이왓는데 락동강(洛東江)은 이십척이나증수하야 시내각처에는 침수와 도괴된가옥이 만허 사상자도 상당히만흘모양이라고한다 경북선(慶北線)과 조철(朝鐵)자동차간선은 불통이되고 전등이꺼저 암흑세계가되엿다 그리고 신세동(新世洞)사는 권한순(權漢淳)(四○) 이라는

陽東水組堤防決潰

永登浦住民一時避難騷動

【永登浦】 십삼일 오전두시이십오분 김포군양동면 목동리(金浦郡陽東面木洞里)양동수리조합(陽東水利組合)의 뚝이 허무러지는 바람에 양화교(陽化橋)에서 일천오백『미돌』지점되는 안양내(安養川)에 린접된 양동식산회사(陽東殖産會社)소유전답륙백정보와 개인소유 오십여정보가모다 침수되엿다

이 양동 수리로조뚝은 영등포 개울록과 한일짜형으로 병행되여잇는 까닭에 한때는 뚝까지 위험이 닥첫섯스나 요행으로안양내가 한가운데 노혀잇는 관계로 함께허물어질번한 위험을 면햇다

이안양내가 허무러지는통에 그근방주민은크게 소동을 이르키여수백명의 피난민까지 잇섯는데

이번 그뚝이 허무러진것으로 얼마나 그것을 약하게쌔혓든 것인지가 실증되여서 부근주민들은불안을 늣기고 잇는동시하로바삐 보강공사에 착수하기를 요망하고잇다 그리고 그곳수위는 오전열한시 현재로 여섯자에나 달해잇서 사면으로교통이 거지반 끈허지고잇다

義林池水組 貯水池決潰

【堤川支局特電】 십이일 오후칠시 제천(堤川)의림지 수리조합(義林池水利組合)저수지(貯水池)제방약 륙십간(間)이호우(豪雨)로 터젓다 이복구비만 약이만원을 요하리라한다

京城職業生徒募集

시내아현정(阿峴町)에 잇는 경성직업학교(職業學校)에서는 금번도 제이긔(第二期)생도모집을 한다는데 모집인원은 전수과(專修科)와강습과(講習科)를 합하야 약오십명이라고하며 상세한것은 동교에 문의하라고

光州鍾紡從業員 二千五百名怠業

十三日會社에待遇改善要求

注目되는今後進展

【光州支局特電】 광주부내에잇는 종방전남공장(鍾紡全南工場)의직공과사무원은 그동안 공장측에 대우개선을 여러차례 요구하여 오든바 끗끗내듯지안흠으로 십삼일아침에 요구조항 직공측이십일개조 사무원측 륙개조를 제출하고 이천오백명의 직공과사무원이 드듸여 태업(怠業)을시작하엿다 금후형세 여하에따라 이천오백명직공과 사무원이 총파업을 단행할긔세를보이고잇다

孫、南兩君에게보내는 感激에넘친祝電

=本社到着分=

▲손、남량군의 승전을축하함 (慶南咸陽하조식)

▲손、남량군만세 (光州유도자)

▲귀사를통하야 손、남량선수의 우승을 축하함 (安城鑄物株式會社職員一同)

▲손、남량군만세 (全州강상훈)

▲손、남량군에게 보내는축전이 다음의 제씨로부터 본사에보내엿다 忠南江景 金碩根、鳥致院 孫光鉉 咸興 尹昌達 平壤 一讀者 京城 李俊浩

▲손、남량군을 축복함 (大邱漁業組合)

▲손、남량군을축복함 (大邱영빈상회)

▲손、남량군축복함 (大邱[illegible])

▲축손、남량군우승 (全州朝鮮자동차)

▲거이조선의 력사적승리를 귀사를통하야 축하의뜻을표한다 (全州某)

▲축손남세계제패 (平壤우신면)

關西體育會서祝電

【平壤】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에서는 마라손제패의용사 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량군에게 각기축하전보를 타전햇다

◇祝文 손군 남군의 금회우승은 우리민족전체의 우승이다 축하하고롭기버한다

古茂山서祝電 孫、南兩君에게

손、남량군의 세계제패를 축복하는의미에서 함북고무산(古茂山)시민일동은 본사에 위탁하야 백림에 축전을발하엿다

李孃本社에祝電寄託

십삼일 오전열시경에 시내수송정(壽松町) 칠십이번지 리영선(李英善)양은 이번조선의 이름을세게에 떨친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 두선수에게 축전을처달라고 현금삼십원을 본사에 긔탁하여왓다

氣弱한乘客 二名이落傷

십이일 오후열한시십분경에 시내 종로(鍾路)이정목 륙십팔번지압해서 동대문으로부터 서대문으로가는 일백륙십삼호 전차가 만원이되여가던중 운전대의 자동차단긔(自動遮斷機)의『스파ㅣ크』소리에 놀래여 운전대에타고잇던 시내종로삼정목 칠번지 김룡운(金龍雲)(三七)이가 박그로뛰여나리다가 머리를 땅에 부듸처서 전치이주일간의부상을입고의전병원에 입원하엿고 또 청진정(淸進町)삼십오번지의 이호박용복(朴用福)의 장남 주용(周湧)(五)이라는 아이가 놀래여인사불성이되것을 동대문병원에입원식혀 응급치료중이다

浸水地赤痢念慮

豫防內服藥配給團束

해마다잇는례와 마찬가지로 한강연안일대가 한수해를겪고난뒤엔 물채엿든집이나 아니거나간에 전염병중에도 특히적리(赤痢)가 머리를들고 붓적 성히는것이다 이전례에 비추어서관동산서에서는 이번장마가 완전히끄티기를 긔다려가지고 관내 수해지에 림시대청결을 시행하는 한편 이것을 막기위하여 예방내복약들을 배급해서 먹게할터인데 일반가정에서도 특히 아점에 주의를 하여식구、옷가지등 모든가장즙물을햇볕체 폭쇄함과함께 음식물을각별히 조심할필요가잇다 한다

⑥

草綠色毛氈을쪼개는 眼下의銀白色曲線

江뚝에廢兵舍는"學良"當年의遺物!

禿山의羞冒를이곳서雪憤

農事洞에서 **本社特派員 李相昊 手記**

우리뻐쓰는 남촌(南村)이란 적은 마을 압흘 지나간다。 이곳서는일홍담린 마을이나 동리라도 커서십여호척으면 오륙호에지나지안는 부락이다。 악가지나온독소통서도 고리햇거니와 말로듯든 국경지방이라 심리에한곳 오리에한곳 "무슨주재소어듸검문소"(檢問所)라는 간판을 부친 서울종로네거리 부청야간금고(夜間金庫)처럼생긴 가가집이 당당한 순사한명식을 담고잇서 길가는수상한사람 자나가는 자동차속할것업시 이잣봇이 검사를하는것이다。한거름 지나가는순사라도 반드시 장총을메고 모자끈으로 허울조려맨통채가 두만강이상으로 국경넘세를 피우고잇다。

뻐쓰는무산을떠난지 약사오십리되적한 지점에당하니 고개롱구십도로 제켜야 처다볼수잇는 어마어마한 큰재가 압을가로막는다。 여기가 갑령(甲嶺)재마루터에 선사람과 재아래서 처다보는사람과 이약이라도 주고받듯가튼사이나 여기서마루터까지 올라가는데는 이십리길이라고 요술사가 요술을 부리면서 신이나서 설명하는 그얼굴로 뻐쓰운전수가 설명을한다。

이친구가 잡고대롤 하나하고 까닭을 무럿더니 올라가보시면 압니다 라고 가볍게 나의무지를 꾸짓는다。 아닌가。 뻐쓰는 강뚝을 잠깐 재처두고 외편산골속으로 쑥 드러가더니 재ㅅ마루를 가운데두고 도라올라가기를 시작한다。 뻐쓰가 강뚝으로 나올때는 재ㅅ마루가 보엿다가 다시 산골속으로 드러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보이는 골자구니。 이러케 비틀거롬을 것기 약사십분。 뻐쓰는 갑령(甲嶺)마루터에 닷는다。 거게서 거게건만 이십리길이 훌융하다。

○……○

장관이란 이것이로구나。 갑령을 중심으로 두만강의 하류 상류가 발아래 펼처저 은백색(銀白色)곡선이 초록빗 모전(毛氈)폭자이를 쪼개여 다란듯 풍지가 큰삽이 잇스면 그대로 오려떠서 아담한화분에옴겨서 책상우에갓다두고 보고시픈 경경이다。

여기서보니 강건너편아득한 산회(山彙)가 눈압으로 당겨들며 이편산과 저편산의 모양과 거래가『렛힐』을 부처 구별한듯이달려보인다。 우리땅산이 서슬봇처럼 빨족하면 저편땅산은 소잔등보담도 두한편이며 우리편산이 하늘을치뚜룰기세라면 저편산들은 땅을물리고 드러갈뜻한 거조다。

예각(銳角)과 둔각(鈍角)의 대조、진취(進取)와 퇴영(退嬰)의 비교 두편산욕(山谷)들보아 직감되는인상이다 뿐만아니라。 우리편산은 빽빽한 수림으로견가히볼틈이 옷을입엇슴에비하야 저편산은 벌거승이그대로다。 산이벗겨젓다고 하야 압집사람 뒷집사람들로부터 가진주모와 못당할비우슴을사고잇는 그포원을 여게서다털고 여게서다갑는듯하다。

눈아래버려진 저편땅벌판에 두래를 홍담으로막고 가운데는우리농촌에서 누에머이는 집가티지은 큼직큼직한초가며채가서잇는 새다른집한채를 가르처 중국병영터라고 운전수는 핸들을잡은채 친절히 귀속질을한다。 우산가지고 전장에나가는 군사들이명령이나 낫잡혹자는듯이지는 모르겟지마는 장학량(張學良)의군대가 백여명주둔하고잇든곳이라고한다。

쫄이야 되엇든마량든、이강뚝이면 봉천(奉天)서、수천리변경。 이곳까지 군대를주둔케한 서슬이푸른 당년의장학량 눈울감고 생각을둘리면 갈린듯세태、구으는인정、모다가 력사란필림의 한조각환영(幻影)일뿐이。

○……○

우리가탄뻐쓰는 한다름에 갈령노분재를 단숨에내려와 홍암(興岩)이라는 마을을지나니 한출기강물이압흘막는다。 한동안 두만강뚝을옥작별하다옵이라 이것이두만강인줄만녀엿더니 제법때롤버슨 콩크리트다리를 서슴지안코건느지에 깜짝놀라서 엽색람에게무르니 이것이두만강지류인연면수(延面水)。

연면수는 장백산맥(長白山脈)설령(雪嶺)으로부터 근원을발하야 이곳이 두만강과 어울러맛닷는 어구로 내의넓이는 두만강보듬나 차이가업슬만큼 크다。수수밧속에 진동만 떠엄떠엄드러나는 마을을지나 길가 땅버들숫풀에 짓드린 이끼속산 백까치떼를놀래며 서두수(西頭水)다리를 성큼건너 뻐스는삼장(三長)까지 도착하엿다。

◇伯林올림픽村食堂에서 우리七選手와 在獨留學生의團欒한 모듬=向하야 左편으로부터 南昇龍、張利鎭、李奎煥、鄭商熙、廉殷鉉、金容植、孫基禎、李性求 諸君 (七月廿二日 伯林에서 [illegible])

運動競技

朝鮮庭球 代表凱旋

今日午後京城에

伊勢神宮軟式庭球大會는 八月三日부터宇治山田市에서行한바 이에出場한朝鮮代表팀은破竹之勢로 그곳 强豪를 물리치고 다음과가티五種目 選手權을 朝鮮으로가지고 도라오게되엿다

男子中等學校選手權、男子中等學校府縣對抗選手權、大學高等專門學校選手權、大學高專府縣對抗選手權、一般男子府縣對抗選手의

五個의優勝旗를 獲得하고 一行七十餘名은 今十四日 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 列車로 凱旋할터인데、同日午後七時에는 府民館大講堂에서 歡迎會를 열기로되엿다는데 會費는 二圓이요 參加者는 殖銀內朝鮮軟式庭球聯盟으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甲子園中等野球開幕

【甲子園電話同盟】 大朝主催 第二十二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一日은 十三日午前八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出場二十二校三百餘名選手의 入場式이잇슨後、前年度優勝校松山商業으로부터、優勝旗返還이잇고나서 東海代表 岐阜商業對北海代表函館商業戰으로 大會의幕이 열리엇다

函館商業	0	0	0	0	0	0	0	0	0	0
岐阜商業	4	2	3	0	0	6	1	2	0	18
早稻田實業	0	0	0	0	0	0	1	0	0	1
育英商業	0	1	0	0	0	0	0	0	1	2A
長野商業	1	0	0	0	0	0	0	0	3	4
[illegible]商業	0	2	0	6	2	1	4	12	A	27A

올림픽籠球

【伯林籠球場十二日同盟 特派員發】 올림픽籠球準準決勝은 十二日午後四時 (朝鮮時間十三日午前零時)부터 籠球場에서 開始되엿는데 멕시코、米國、加奈陀、波蘭이 이겨 準決勝에남게되엿다

멕시코34 (14…10 20…7) 17伊太利
米國56 (28…3 28…20) 23比律賓
加奈陀41 (18…15 23…6) 21우르과이
(波蘭은 瑞西를 이겻다)

日本籠球敗二

【伯林十三日同盟特派員發】 籠球代表는十一日伯林出發 잇센에서 獨逸選拔軍『나이헬하인』과 對戰한바 六對二로敗하엿다

나이헬하임6 (2…1 4…1) 2日本

米拳鬪選手棄權? 審判의不公平을非難

【伯林獨逸十二日發同盟特派員】 올림픽拳鬪競技는 目下伯林體育館에서行하고잇는데 審判의不正確、不公平의非難續出하야 連日紛糾를거듭하고잇스며 米國팀은 드디어棄權說을傳하기까지에이르럿다 秘露選手團의棄權에뒤이어 커럼비아、智利兩選手의同情棄權이잇섯고 키르港에서는요트競技에도한 審判問題를이르켜 成績은十二日에 겨우 決定하는等 難問題가續出하고잇다

日本拳鬪敗退

【伯林올림픽十二日發同盟特派員】 拳鬪競技에 出場한 日本代表選手는 빤탐級의 橋間을 除하고 모다 敗退하엿는데 各選手의 順位는 다음과갓다。

프라이級 第九位 中野千代人
페-더級 第十三位 宮間佐治郎
라이트級 第七位 永松英吉
웰터-級 第七位 李奎煥

【第二回戰】 스테프로브(에스토니어) 判定 永松(日)

朝滿陸上豫選戰績

第四回朝滿對抗陸上競技大會는來二十三日 京城運動場에서 行하기로 되엿는데 이大會에 出場할 朝鮮代表候補選手銓衡記錄會는 十二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慶北、黃海 咸南等地에서도 參加하엿스나中央地帶에서의 參加者가업서 이럿다할만한 記錄도 作成치못하엿다 當日第一位만의 記錄은如左

▲百米 宋壽鳳(崇德) 一一秒F ▲二百米 宋壽鳳(崇德) 二四秒F ▲四百米 韓範錫(아俱)五八秒六 ▲八百米 鄭有錫(慶北)二分九秒二 ▲千五百米 韓日進(咸北)四分二一秒四 ▲五千米 1柳長春(京城)一五分四八秒 2韓日進(咸北)一六分一七秒二 ▲高障碍 李章完(黃海)一六秒一 ▲走幅跳 北岡(京城)五米九四 ▲走高跳 李章完(黃海)一米七〇 ▲投圓盤 1劉約翰(鐵道)四〇米三一 2朴賛圭(普專)三五米七四

今日의올림픽

◇第十四日 金曜

▲水上競技(晝) 女子高込決勝(後五時) 女子四百米自由型準決勝 二百米平泳準決勝 千五百米準決勝 百米背泳決勝 女子四百米繼泳決勝
▲競漕(그르나우) 決勝(後十時半)
▲拳鬪(獨逸館) 第四次試合(後十一時半) 同(前四時半)
▲籠球(籠球場) 決勝(前零時)
▲하키ー(하키ー場) 決勝(前零時半)

韓氏家四代世傳秘方製
效力偉大・萬腫速治
韓氏膏藥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되는 製菓法傳授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二四四番
カタログ進呈

毛生藥 후미나인
야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 또 이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 ●脫毛●털어빠진대●머리꼿상한대 ●눈섭성긴대●털안나는대●男女의꼭잇슬곳에털업는분……은곳안심하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二錢、鮮滿一品切時는 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即時送藥함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硏究이된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即頭瘡、눈섭、수염、脫毛、其他人體毛髮이稀薄한것을마게하고 微細한毛根이라도 털나는藥 フミナイン의效能으로 漸次生長식히요 禿頭病에依하

模造品만흠 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二一八三三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三五五六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二二番
當る十四日特別公開 待望の怪盜黑頭巾完結篇!!に來る
最低入場料 特別興行なれ共 階上、階下均一 大人廿錢學生小人廿錢
第一回 午前十一時卅分 第二回 午後二時卅分 夜之部 同七時
新興キネマ京都太秦撮影所作品
少年俱樂部連載 原作 高垣眸 監督 渡邊新太郎
怪盜黑頭巾 百鬼園化の卷
大谷日出夫主演
毛利峰子、松本泰輔、松本田三郎 荒木忍、田村邦男、東良之助 總出演
新興キネマ東京大泉特作 原作 中野實 監督 曾根千晴 ポリドール主題歌吹込
浮かれ櫻 全發聲版
立松晃、山路ふみ子主演 きみ榮特別出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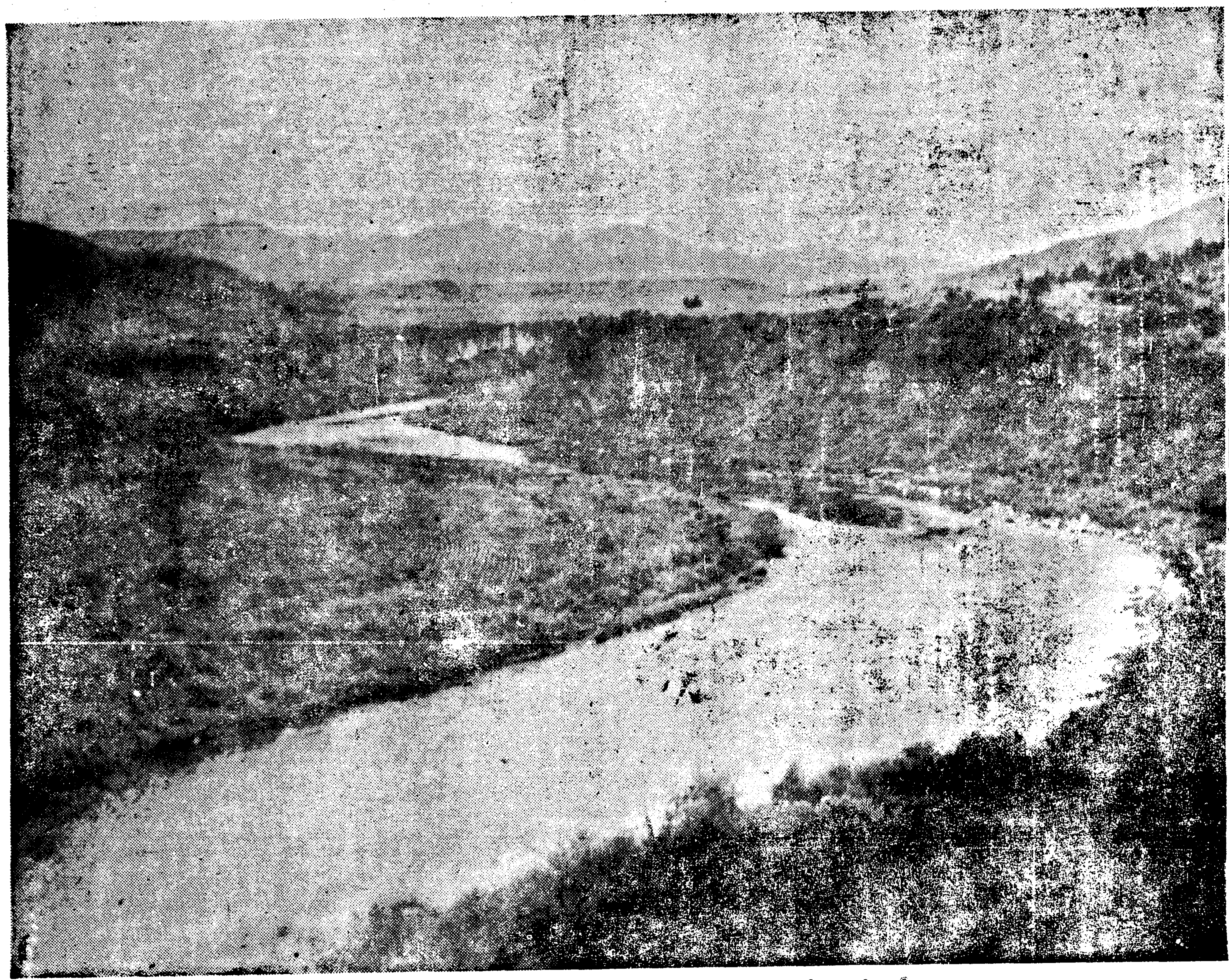
東洋劇場 西大門町電光三三一番
●靑春座第七週 八月十四日낫부터晝夜 ─消暑特別興行週間─
崔獨鵑脚色 一、春香傳 二幕八場
다시한번 說明할必要가업는 春香傳! 萬古의烈女春香傳은東洋劇場舞臺에올니므로비로소그갑이알녀젓섯스며 靑春座員의演技로비로서그人物들이살엇섯다 이名劇을다시보고십픈이 劇을이번 機會에또한번보시라
周峰越作 二、悲劇 不具의안해 一幕二場
사나히를사고도는세상가운데사랑을사나히의苦悶을생기고 한개人間으로서의快活한길을것게한다
洛山人作

日英米獨佛 五ヶ國特許
器械鍼療法講習會開講
寶地科、通信科、速成科、特典全國無檢定開業 同書手續必要關係書類完備學則開業文獻送呈(四錢要)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奧村療法學院 電話土佐堀二八四三番

돈버리
이십니가? 모르시면모르고損害! 貨幣의切手를年號에따라서高價로買收하오니 意外의大利益을보시오 京城府下町振替京城共益富農社代理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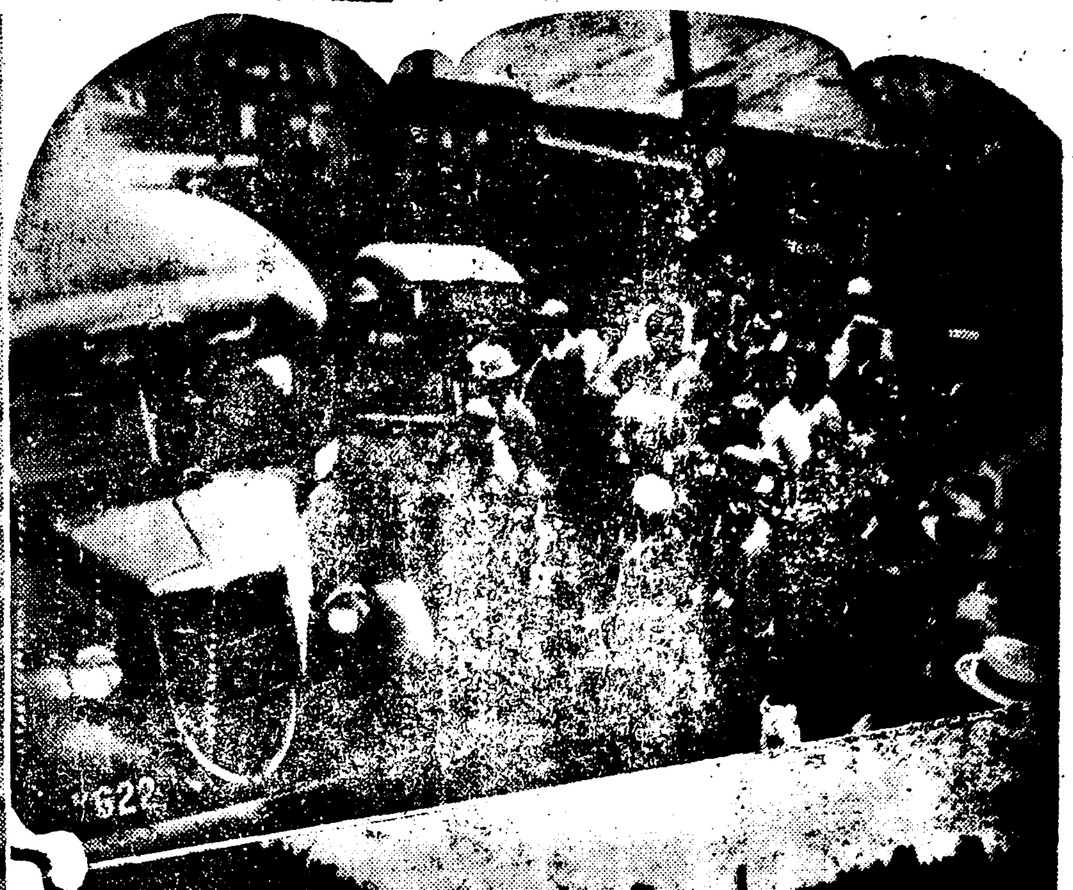
ランチック
이것임니다ー
日本에서第一最高級직구ー라는것은
혼자서쓰기가 앗갑고
꼭 다른분에게勸하고십흔 직구이지요

靈峰一步前·白頭山探險隊畫報



茂山에서 農事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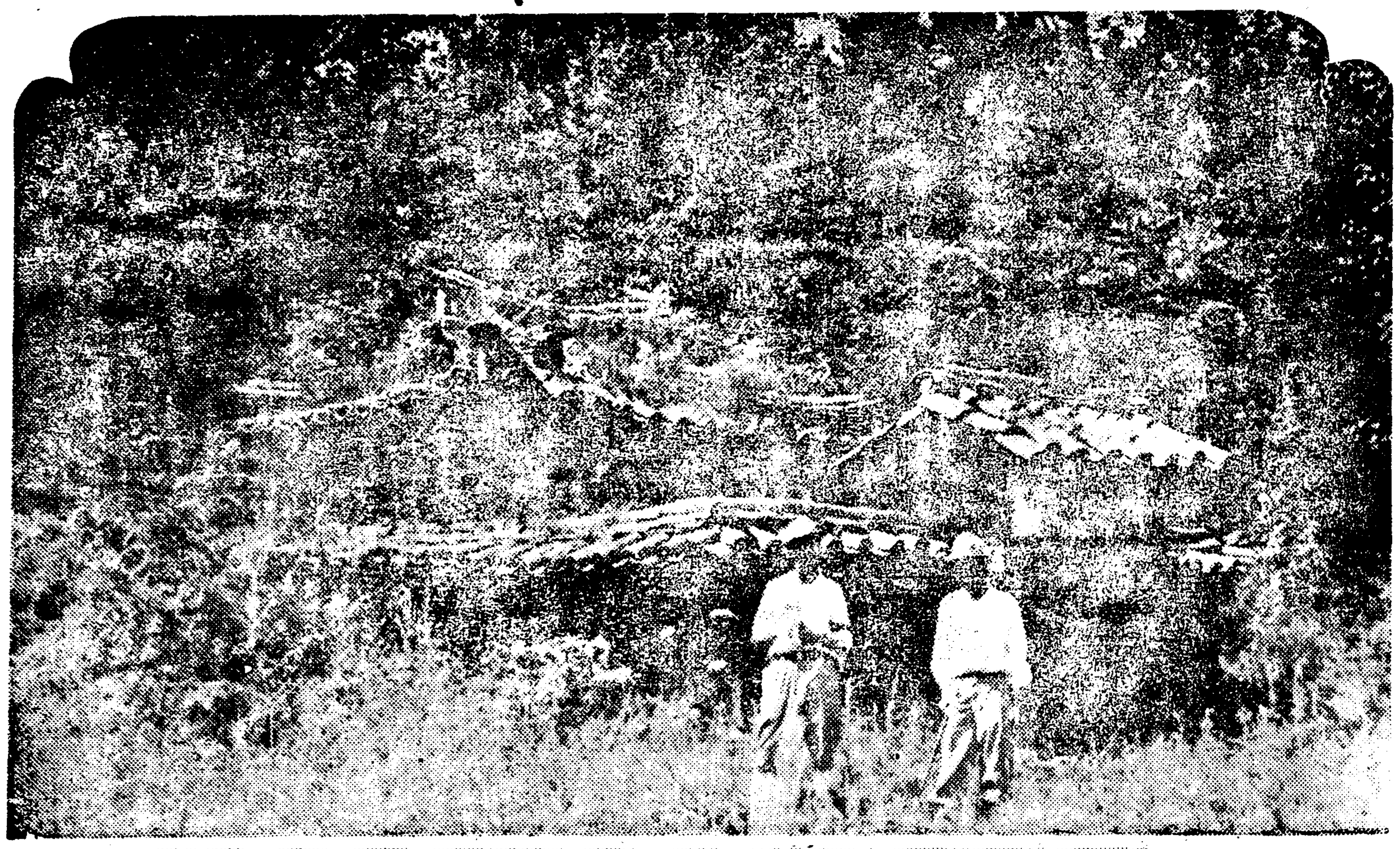
本社特派員 李鍾玉撮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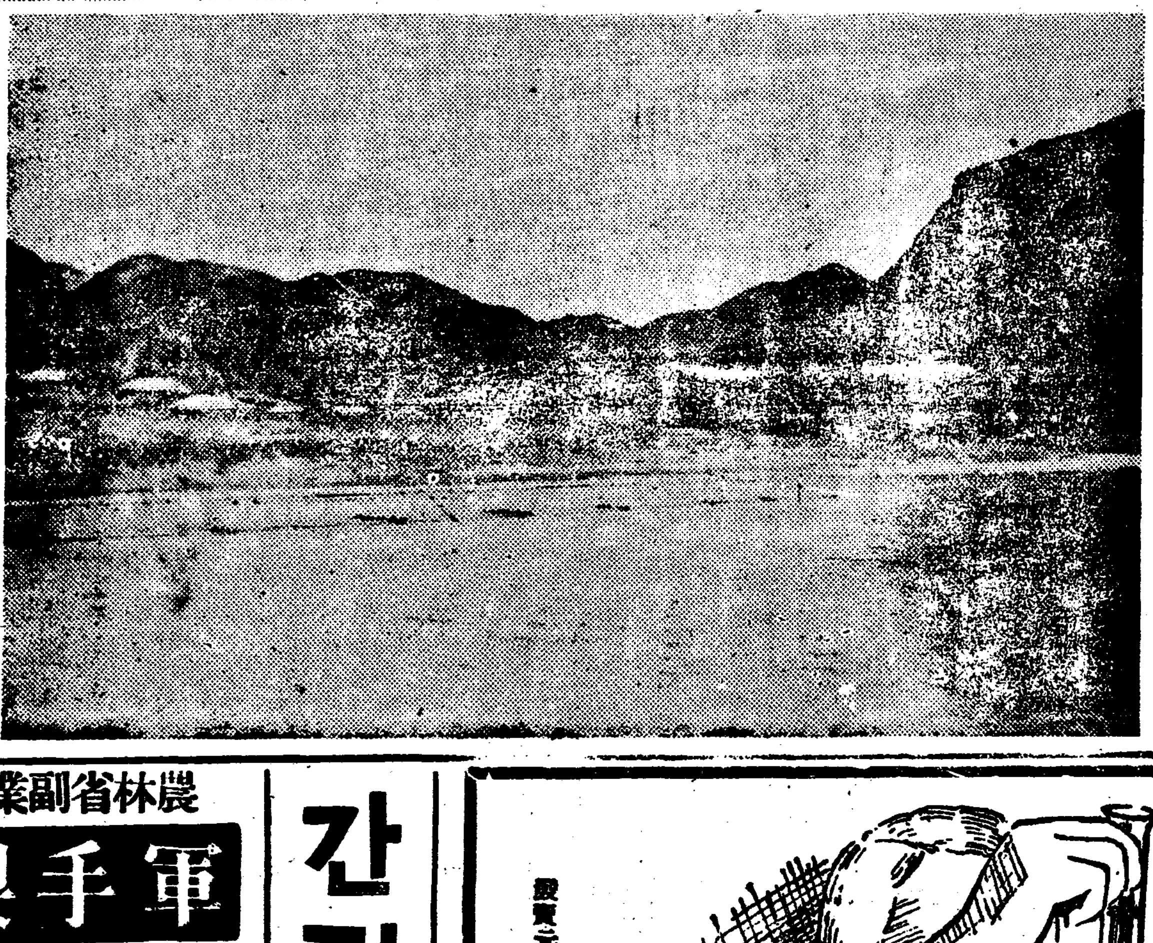


(寫眞說明) 右上으로부터 茂山出發、農事洞에 到着하야 各班에 食糧分配 科學班의 動植物採集光景

國境線을 그린 豆滿江上流

여편은 조선 · 저편은 만주——三長에서





(寫眞右) 豆滿江上流 南村附近 〜農事洞의 天王堂〜

★國境境界線은 單一步之間

(寫眞右)國境表示가 잇는 三長面 三上洞水橋 江岸一景

農林省副業課奬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illegible]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간질

[illegible]

大阪市浪速區役所北 大福堂

淋疾 合併症治療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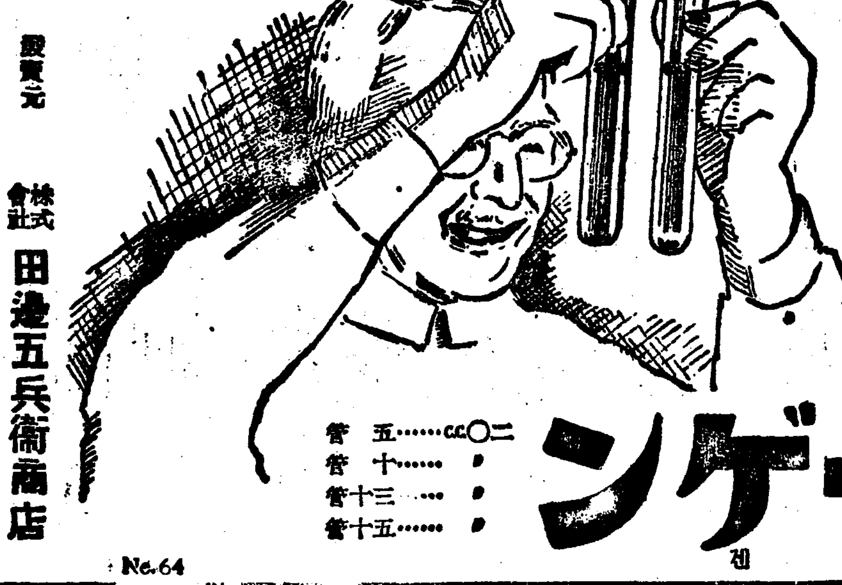
迅速히排膿을中止식히고 混尿를淸澄히疼痛을鎭定함

注射

本劑는淋疾의治療上가장信賴할수잇는 와구진을 特殊(特許)의處理에依하야 毒素等의 副作用을除去하고그效成分 인아지겐을 普通量의數倍를一回에注 수잇게研究하고 이에化學的治療劑인 칼시움及우로사민等鎭痛、消炎、殺菌 力잇는藥劑를配合하야 完成한것입니 다따라서

急性淋疾에는 처음부터 慢性淋疾特히 治療困難한 攝護腺炎、丸炎等에는特히 有效하야 治療界에 賞用되여잇습니다。 또婦人科領域에 잇서서 手術外에治療法이업다는 喇叭管炎、子宮內膜炎에도 奏效합니다。

本劑의 注射는 隔日로이를施行하야 慢性淋毒性疾患을治癒한 多數의治驗例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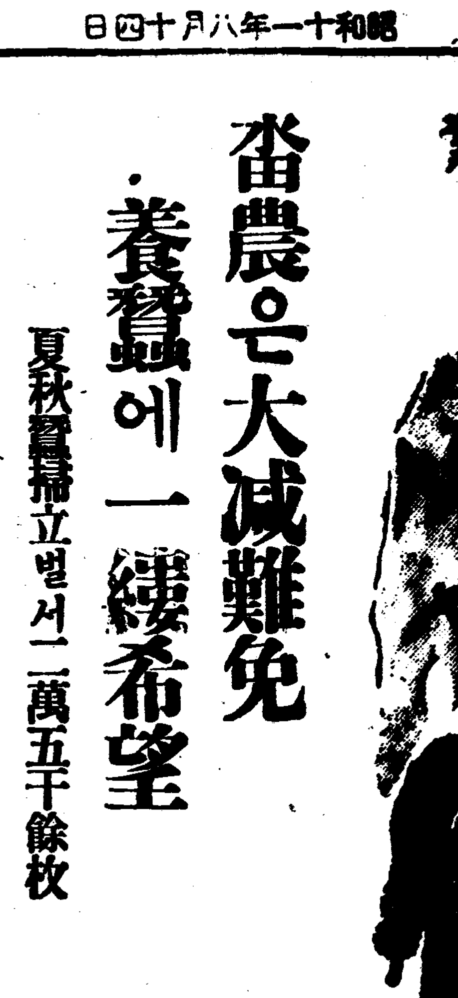


ネオカルゴノーゲン
네오가루고노겐

五管……二CC
十管……
三十管……
五十管……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o.64



産業

畓農은大減難免 養蠶에一縷希望
夏秋蠶掃立벌서二萬五千餘枚
憂愁에싸힌平南農家

【平壤】平南一帶에는 移秧時期인 六、五兩月에 降雨가업서서 移秧不能에 빠진面積이 九千餘町步에 達햇고 따라三四割의 減收를 免키어려운 形勢에 直面하얏다 그러중 밧곡식은 七月의降雨로 順調로되고잇다 하나이것만으로는 農村을 潤澤하게할수업서 憂愁에싸히엇다

이에對하야 當局에서는 그 具體策을 講究中인바 그結果는 注目되는터인데 現代에잇서憂愁에 싸히엇는 農村에서 經濟的으로 一縷의 希望을 가지는것은 養蠶으로 今年夏秋蠶은 例年보다 五日이느저서 十日부터 掃立이 始作되엇는데 二十日까지에는 맛치게되리라는바 十二日現在의 掃立枚數는 二萬五千六百枚에 達하는데 이以上될때는 桑葉을 함부로 따서 明春의 養蠶에 큰支障을 이르킬憂慮가 잇서서 이以上掃立을 許諾치안흘 豫定이라한다

그런고 繭價는 一貫에三圓六十錢임으로 凶作地帶農家에서는 繭景氣를 期待하는터이라한다

七、九二九段 八十七萬六千百六十五斤(反當四十九斤)이며 大麻三百五十一段 二千百貫(反當六貫)이며 青麻가八十段 七百五十貫(反當六貫)에 達한다고한다

江東養鷄副業旺盛

平南道中 養鷄로有名한 江東郡의 鷄價가漸次高揚되어잇서 供給을 할수업슬만치 需要의激增을 보이고잇는 形便인데 當地金融組合員 一千五百七十九戶의 昭和二年度로부터 今年四月까지의 鷄卵放賣額은 四萬二千餘圓의 巨額에 達하야 그收入으로 幼豚을 購入한것이 一千六百五十七口、土地購入이 八百七十九口、林野購入이 一萬一千七百口 學資金充實이 四萬五千三百六十口 高利債整理가二百十口 商業資金充當이 六百五十七口 結婚費充當이 三十三口 八十六口

今年長連苹果 豐作을豫想
主要販路는中國、南洋等地

【長連】黃海道長連地方의 苹果栽培는 約二十年前부터 始作하야 只今에는 栽培總面積이 百餘町步에나 達한다는데 그中에는 아직도 樹齡이 어린것도 만히잇지마는 現今 確實히 結實되는것만으로도 六十萬貫乃至七十萬貫이된다고한다 現下朝鮮苹果界의 名産地로는 鎭南浦、黃州等各地의 名聲이 頗大하지마는 近代的合理化한肥料管理며 味色이 絶好하기로 長連産苹果도 빠지지안는다한다 더욱 多年의經驗과 남다른技術을 加하기때문에 年年 凶作이어서 均一한結實을보게됨으로 今年도 亦是豐産을 豫想하는데 인제 그販路를드르면 大槪가 鎭南浦를通하야 멀리中國上海 日本內地 南洋等地로 輸出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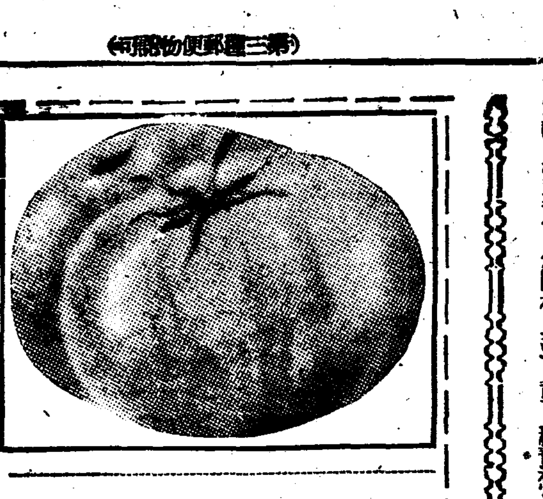
江原道海岸造林計畫

海岸林은 防消、防風、衛生等의 保安的 效果及 魚附林으로 重大한 役割을 有한것은 更言할必要조차업는데 또海邊漁村部落의 苦痛으로 녁이는 燃料의 給源地로도 直接利用할수잇슴으로 普通林野에 比하야 그效果가 莫大한것이다 그럼으로 江原道에서는 여기에着眼하야 東海岸一帶 約九百町步의 海岸沙地에다가 지난昭和九年度부터 着手하야 今後五個年計畫下에 海岸林을 全部完成식히고저 每年百八十町步式 造林을 하고잇는데 方今 計畫대로 着着進行中임으로 來十四年까지에는 全部豫定대로 完成을보게되리라고한다

寧邊의特用作物 今年二割增豫想

今年度 寧邊郡內의 特用作物耕作狀況은 氣候의 順調로 大體昨年에 比하야 二割內外의 增收를 豫想한다는바 種別及收穫豫想을보면 棉作付面積은 一

토·마·토 由來·品種·營養 (2)
李相泰



東洋의由來

「홈괴우스」民의 一七五五年의 記錄에 依하면 當時 馬來群島에서 「토마토」를 野菜로 食用하고잇섯다하며 또 一六五八年에 瓜哇에 移住한 和蘭人이 蕃茄를「로마라스」라 하고 食用하고잇섯다한다

日本內地의由來

日本內地에 傳播된 明白한 記錄은 업스나 距今二〇〇餘年前 卽 一七三〇年頃의 貝原益軒氏著大和草本에 簡單한解說이잇다 그럼으로 고히 觀賞用으로 中國으로부터 傳播된듯하다 或은 明治十年에 歐洲로부터 傳播되엇다하는 이도잇서 未詳하다 明治四十年以後 洋食의 增加로 將來有望性이 認識되어 各地에서 多少 栽培하게되엇다 日本內地서 「토마토」를 蕃茄라 稱함은 南蠻으로부터 傳播된 까닭이다 近年의 栽培는 漸次 發達하야 其栽培面積의 激增과 收穫量의 增加가 此에 及함 바한 蕃茄가업다

朝鮮의由來

明白한 記錄이 업스나 明治三十九年頃에 日本內地로부터 傳播된듯하다 現今 朝鮮內에서도 蕃茄의栽培가 增加하고 其價値가 認定됨에 따라 相當한 價格으로 販賣된다 特히 都市附近의 農家에서 栽培하면 有利한 果菜다 一段步에 八百貫은 充分히 收穫할수잇스며 多少管理에 잇는 이는 千貫에 達한다 其價格의 變動은 大槪七月을 最高로 漸次低落되어 九月에는 再次騰貴된다 一月부터 五月까지 出廻되는 데 「비스」오브올을 비이만코며 百匁約四乃至五錢이다 京城、大田、平壤附近에만 히栽培되는데 特히慶北은

十町步의 栽培를하야 加工한것을 佛蘭西까지 輸出하고잇다 今後 榮養學的知識이 一般에게 普及된다면 野菜의需要가 增加될것으로 蕃茄栽培의 前途는 洋洋하다。할것이다。特히 蕃茄의 品種은 만치만 『폰데로사』種은 一層有望하다고밋는다 今後 蕃茄는 農家에서 만히 栽培될것이지만 家庭園藝的小規模의 栽培는 特히 鉢 或은 空箱等에 二三株式 栽培하면 대단히 興味가잇는것이다

品種

現今 各國農業目錄에 올라잇는 品種을合하면 百餘種에 達하는바 其優劣은 地理、風土에依하야 다르다 이제 有望한 品種을 若干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赤色早生種

가、『스파ー크스·오ー리아나』 此는米國 加藍氏 모ー리스·앤 두·스노ー시ー드 會社種으로 節間短、樹性强、病虫害에 對한抵抗力大、果形圓、豐産으로 促成栽培에 可하며 生食料理用에適當하다 缺點은 雨害로 因하야果實이 他種에比하면잘 갈러짐으로 商品價値를 損失하기쉽다

나、『샹론스·푸린세스·오버엘스』 英國『샹론스』會社種으로果形圓水分이만허生食用에 매우適當하고 促成栽培에 可하다 이品種 一般의 栽培에 適當하다는 促成이와 原 ... 南鮮地方에서 栽培한다 經驗者도 잘栽培할수잇다 此種은 比較的上、下가 同一하며 一枝에十乃至十五個의結實을보고 一個年平均 三十匁이며 種子가적다 一畝步에約 二、〇〇〇乃至二、四〇〇個의 收量이잇다

다、『비로리아·호ー큰사라다』 果는 小形이나 一房에 十個內外가 結實하고 一株에 百個의 收量이잇다 寒地에 適合하며 一畝步에五、〇〇〇個의 收量이잇다

마、『레드、펫』 果實이 良好하고 寒地에適當하다 其他有望한 種類를들면 『죤당』『마ー그로ー프』『플ー든·퀸』『크림손·캇슨』等이다

赤色晚生種

가、『폰데로사』 米國種有名한 桃色晚生種、樹性强健、果實甚大、一果普通八十匁乃至百匁 或은 百九十匁에 達하며 暖南東萊地方에서는 二百匁의것도 잇섯다 하다 그러나 第五次 結實은 果實이 적어진다 生食用、쏘ー스用에 最適하다 一名桃色「토마토」라하고 果는 多少角形을 帶한 圓形이고 種子가 적고 肉質緻密하며 品質이 良好하다 一般的으로 晚生種은 早生種보다 果가 크고 品質이 良好하야 家庭用에 最適하다 此種을 溫床에서 育苗하야 (二月下旬 乃至 三月上旬에 播種) 七月上旬에 市場에 出荷하면 相當히 有望하리라고 생각된다。一段步 八百貫乃至千貫은 容易하다 果가 큼으로 運搬에 傷하기가 쉽다

나、『愛知』 日本內地種으로 『쏘ー스』에適當하다

다、『미카도』 前種과同樣하다

現今 朝鮮內 農村에서 栽培하려면 『폰데로사』種이 第一有望하리라고 생각된다 此는 甘味 多汁으로 一般需要를滿足식힐수잇다 『폰데로사』는 晚種이라 嶺南以北은 多少 播種을 일즉이 하고(一月中旬溫床에)促成栽培에 依하야 七月上旬에 出荷하는것이 有利할것이나 經濟的으로보아 多大한 資金이(?)를 것이니 一般農家에서는 露地栽培를하되 多少 播種을늣게 하야 (約廿日假量一般의 播種보다늣게함이可) 蕃茄의 不足時에 出荷함이 조흘것이다 一般的으로보아蕃茄時에는七月上旬에高價로 販賣되지만 七月中旬부터 八月下旬까지는 低落되며 九月上旬부터騰貴한다

成分

蕃茄는 歐洲諸國의 重要十果中의 一이다 그럼으로 其化學的成分에 關하야서는 比較的 詳細히 硏究되엇다 그러나 各學者의 分析結果는多少相異하다 이제 若干의 硏究를 列擧하면如左하다

▲『바ー레이』氏에依하면

成分	含有量%
水分	九三、四二
林檎酸	〇、四八
枸櫞酸	〇、〇九
蓚酸	〇、〇一
粗脂肪	〇、三〇
蛋白質	一、二〇
炭水化物	四、〇〇
灰分	〇、五〇
酒石酸	痕跡
琥珀酸	痕跡

▲『코나하』氏에依하면

◇全果

成分	含有量%
水分	九三、四二
粗蛋白質	〇、九五
粗脂肪	〇、一九
糖分	三、五一
無窒素物	〇、八四
粗纖維	〇、四八
灰分	〇、六一

	含有量%
果皮	三、七〇
種子	一〇、九〇
肉實	八五、四〇

◇肉實

成分	含有量%
水分	九五、三一
可溶有機物	三、三二
可溶無機物	〇、三八
不溶有機物	一、〇一
不溶無機物	〇、〇八

◇乾物百分中

成分	含有量%
粗蛋白質	一四、四四
純蛋白質	七、二九
아미도	七、一五
葡萄糖	一六、五六
果糖	一六、五六
蔗糖	三五、三八
林檎酸	七、一四
色素	一、八九

産業政策大轉換
積極的으로資本主義産業誘致
農林、殖産兩局이企圖

昨十年 朝鮮産業의 總産額은 實로 大躍進을 示하야 大書特筆할만하다 卽 總督府調査 昭和十年中의 農産額은 十二億八千萬圓 工産五億一千萬圓、水産一億三千萬圓 林産一億一千萬圓 鑛産八千八百萬圓 總額二十一億一千萬圓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는 明治四十四年의 總生産額 三億八千三百萬圓에 比較하면七倍餘의 激增이다 右情勢에 鑑하야 總督府農林、殖産兩當局에서는 朝鮮의産業은 이미 搖籃期를 지나서 漸次로 活潑한活動期에 드러간것으로 認定하고今後 從來의 産業政策의 大轉換을 企圖하야 新總督、新總監의 着任에 際하야 左方針을 進言하고 諒解를求하야 十三年度부터 實行하고저 計畫을 進行中이라 한다 卽 總督府의 從來의 産業政策으로는

一、民力文化의 充實을 主로하는 消極的産業政策

二、資本主義産業의 高度化를 主로하는 積極的産業政策

의 二方針을 倂用하야 産業의 助成發展을 圖하여왓는데 目下朝鮮의産業이 獨立할만한 領域에 達하고잇는 點으로보아 消極的助成策을 堅持할 必要가업고 積極的으로 資本主義産業의 誘致에 努力하야 『爲先도울뿐』 然後에 民力産業의 充實發展을 圖할것』이라는 新方針을 樹立하기로되엇다한다 그런데 그途行에잇서서는 膨大한 公債財源을 必要로함으로 相當히 反對가잇슬것이 豫想되나 總督府에서는 이에對하야 强硬한 意見을가지고잇는만큼 그趨移는 자못注目되는것으로 大部分이 小規模인 朝鮮人産業에 미치는바 影響이 念慮된다고한다

過燐酸의需要 急速히增加
玆四、五年躍進豫想

朝鮮의 過燐酸石灰의 需要는 日本內地에 比하야 顯著히 떨러저 日本內地는 硫安과 거이 同一한 需要가잇슴에 不拘하고朝鮮에서는 三分의 一가량이든바 玆一兩年來 田作의 施肥增大傾向으로 激增하야 昨肥料年度에는 十五萬叺(十五度換算)에 達하얏는데 다시 今年에는 麥肥準備 及 一般田作需要의 旺盛으로 農林局의 推算으로는 二十萬叺은 確實하다고보이어 硫安은 大體 四十乃至五十萬叺으로 朝鮮內의 飽和點으로 되고잇는데 過燐酸은 玆四、五年內에 硫安增加와 如히 躍進的 需要增을 示하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最近 朝鮮의 過燐酸需要의 傾向은 從前의 十五度物에서 三十度物로 移行하고잇다 이는 麥肥需要가 主要部分을 占하고 또

一、越冬力、作物抵抗力의 增大

一、成熟期의 促進

의 二點이 一般으로 重要視되는 結果로 보고잇다

度量衡器의 普及頗遲遲
明年度부터積極普及

度量衡器의 普及은 一國經濟文化의 尺度로 보고잇는바 朝鮮의 度量衡器의 普及現狀을 各地에 比較하면 過去三年間 平均人口百에對한 普及率은 如左히 最低率로 朝鮮의 이方面이 如何히 發達이 遲遲한가를 窺知할수잇다

	人口百에對한個數	人口百에對한同價格
朝鮮	二、四	三、六八
臺灣	五、三	七、四三
關東州	九、九	一三、五五
日本內地	六、一	一七圓八九

(商工課調査 昭和七年以降三年間平均)

總督府商工課에서는 이現實은 一般商取引의 不正確을 表示하고 一般度量衡常識의 缺如를 말하는것으로 産業朝鮮의 부끄러운 現實이라하야 明年度以降 積極的으로 度量衡의 普及과 그一般重要性을 行할 方針이라한다

七月中木浦貿易 二百二十九萬圓

【木浦】木浦港七月中의 貿易額은 輸移出百一萬二千一百五十六圓 輸移入百二十八萬四千九百二十四圓 合計二百二十九萬六千三百四十圓으로 前年同月에 比하면 輸移出은 六十七萬二千五百十三圓이 減하얏고 輸移入은三十四萬九千七百四十七圓이 增하야 差 三十二萬二千八百六圓이 減하얏는바 輸出은鮮魚、乾海苔、生薑等이 千三百餘圓에 達하얏고 輸入은 天日鹽、重油、中國麻布等이라하며 移出은乾蝦、搾子油、綿絹、肥料等이 多少活況을 呈하얏스나 高價를 期하야 出貨를躊躇하얏고 米는中旬以來直下로 因하야 不振하얏기때문에移出高一萬六千餘石에不過하엿스며 移入에잇서서는 米、操麥、礦油類 綿布의 不振에反하야 木材、綿織物類、石灰、一般雜貨等이 저으히 活況을 呈하얏다

野草가말러서 自給肥料에支障
大同郡서稻穀堆肥를獎勵

平南道下의 今年堆肥는 旱魃로 野草가 말러서 一般的으로 自給肥料에 큰支障이잇슴에 鑑하야 大同郡에서는 他郡에 率先하야 稻穀으로써 堆肥增産에充하고저 目下 郡技術員을 各面에 派遣하야 堆肥增産을 指導한다고

◇豐粉熊本工場年末竣工

豐國製粉熊本工場은 지금 事務所 倉庫의 落成을보앗슴으로 繼續하야 工場基礎工事에 着手하야 年末까지에 竣工을보아 來年부터 操業하기로 되엇다

電力國營案과 贊否의論戰 (五)

電力國營案反對에 營業者蓄起活動

賴母木遞相은 持論을 固持하되 『電力國營은 二十餘年의 持論으로……』 內閣首相은 『이러한 國策의 遂行에는 假使 議會를 세번이나 네번 解散하야도……』 라고 또 遞信省의 少壯官吏는 果然히 말하되 『電力國營 犧牲者를 넘은 進하지안흐면 안되나 國家를 安泰하게한다는 大目的을 爲하야서는 多少의 犧牲은 免티지안흐면안된다 電氣事業者乃至는 電氣會社의 株主의 利益이 多少犧牲되어도 不得已한것이다』 라고 이러한 政府方面의 斷乎한 決意가 放送될때 마다 民間營業者는 不少히 不安한氣分에 싸우는 것이다

民間業者들은 不少히 不安한 氣分에 쌔우는것이바 政府의 決意가 確固하면 할수록 業者의 反對는 猛烈하야 가지안흘수 업슬것이다 이러한 全國電氣業者로서 組織된 電氣協會는 于先 이러나 『電力國營案의 目的은 料金引下에 잇는가』 가 經濟機構의 變革에 잇는가 라고政府當局에 質疑를 못하는 하면 『電力國營案은 旣政一新의 根本』이라는 旨를決議하야 全國的으로反對運動을 展開하고잇다 이를 보다못하야 遞信當局은 『寄附行爲』에 依하야 存立되는 協會가 國策에 反對하는것 치못하다 꾸고 警告하고잇다 그런데 民間營業者의 反對論의 根據는 어떠한가

(一) 政府案에는 二重의 無理가잇다

一般電氣事業界로보면 國營的統制案을 實施하야 이를 理由로 全部의 發送電을 提供하야 이를 國有로한다면 모르되 發送電設備를 設立하야서는 無理가잇다 또 財政上形式으로 이를 出資하야 會社를 設立하는 政府에잇서서는 重大한 無理가잇다

(二) 政府는 國家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ー를 主張하는것이아닌가

遞信當局은 極力 이를 否定하고잇스나 原案의 作製者인 遞信當局은 到底에 이 『이데올로기ー』를 主張하고잇는것으로보면 疑心이 이러나지 안흘수업다 萬若 이러한 國家社會主義的觀念에서 出發하얏다하면 日本産業의 全般에關한 重大問題로 이것이 國力에 及하는 影響에 對하야서는 愼重한 檢討를 要한다

(三) 料金値下의 根據를 明示하라

政府는 國營案의 實行에 依하야 料金을 二割程度 引下할수 잇다하나 企業統制의 効果를 發揮하기 위하야 單一會社案을 實現하는것은 自信에依하야 곳 料金引下를 할수잇다고 생각할수 업다 또 오히려 反對로 어지업다 그러면 政府는 國營의 效果를 目的으로 料金引下를 達成하려는것인가 政府는 遞信 料金引下의 根據를 示하야주기 바란다

(四) 大規模的發電設備은 因難하다

政府의 計畫은 尾瀨沼(群馬縣)其他에 大規模의 發電所를 設하고 同地로부터 大阪까지 大送電線을 架設한 計畫인데 技術이나 極히 不經濟的計畫으로 오히려 國家에 害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 其大送電線은 東西의 『사이클』을 統一하지안흐면 無意味에 歸하게 되는데 『사이클』의 統一은 損失하는바 極히 크고 實效는 甚히 적다고 생각하는다

(五) 水利開發에 依한 燃料의 節約은 期키어렵다 不經濟的 地點도 開發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火力發電의 『코ー스트』를 壓倒하야 國民에게 低廉한 電力을 供給하는 것으로 할 計劃이라하나 ...

簡保金額引上과 定期保險新設 (上)

압서 賴母木遞相은 全電力業者와 이를 支持하는 一部金融資本家의 大同團結에 對하야 斷乎히 膽會晴하야서라도 電力國營을 實施할 意圖를 闡明하야 保險國營에 敢然 一步를 踏出햇다 이리하야 二·二六事件의 興奮이 식음에 伴하야 各省 모다 當初意氣인 庶政一新政策의 着手를 躊躇하기 시작할때 홀로 遞信省만은 大活躍을 示하고잇다

그러나 모처럼 引上이 社會情勢의 必然과 輿論의 必要에 切迫되엇다할지라도 萬若 生保側이 말하는바와가티 顯著히 民業을 壓迫하게되면 輕輕히 斷行할것이못될것이다 그리고 現在 民間保險의 千圓以下의 契約高가 件數로서 總數의七割、金額三割七分임을보면 民業壓迫은 明白하지안흔가라는 反對論에 對하야 簡保側은 極히 樂觀的으로 그杞憂를 一笑하야 日

簡保金額引上

現在簡保保險最高金額四百五十圓은 너무 낫다는것은 前에도 말서부터 引上을 傳하고잇섯스나 實際으로 言明한것은 去七月十七日 賴母木遞相談話에서 當局과 生保會社의 協調를 의 初로 引上이 처음이다 南上이 對하야서는 言明을 遲延하라고 하는 그時議會提出의 根據에 依한 이미 事務當局에서 調查中인데 法文도 作成되엇다함으로 그 쥐고잇슨 能比는 豫算關係인데 元高資本金三十萬以上의 電力을 一擧國營으로 生하려는 遞信相임으로 簡保金額 一千圓增額은 반드시 實現하리라고 보인다

遞相의 생각은 暫時저처노코 現在果然 簡保金額을 引上할必要가잇는지업는지 爲先 簡保局側의 意向을드려보자

一、簡易保險은 大正五年에 最高 金額二百五十圓으로 實施되고 그後 大正十年、同十五年에各 히百圓式增額되어 現在에及하얏다 그러나이미 그後十年의 歲月이 經過하야 그間社會經濟情勢의變化는 刮目할만한바 가잇서 現在의 最高額으로서는 充分한效果를 擧할수업게되엇다 特히最近의 低金利趨勢는 引上을 不可避로한다

一、輿論이 引上을 要望하고잇는 保險의 國民生活에 對한 役割은 이제 새삼스러히 길게말할必要가업스나 現在와如한 不安情勢에잇서서는 이러한 必要不可缺의 保險을 利潤追求만을일삼는 營利會社에 맛김은 甚히 不安하다하지안흘수업다 이에 絶對安全의簡保가 支持되는所以이다

二、現今 金額의 點으로 多少 民營生保에 抵觸할지라도 元來 簡保와 民營生保과는 그被保險者가 分野가 截然히 區分되어잇는 터이다 卽 簡保는 無審査、月掛를 特徵으로하고 따라 保險料도 노프며 또 契約後一個年半은 效力을 發치안는다 이點이 現在保險의 本來的意味로 보더도 顯著히 投資的意義를 가지게될 民營生保의 領域을 決斷코 侵犯하지안는다

三、過去의 引上에 徵하야도 生保側의 民業壓迫宣傳에는 多分의 에누리가 認定된다 簡保實施以來의 數字를보면 그러 卽 別表에서도 보는바와가티 多少의 影響은잇섯다할지라도 翌年에는 이를 充分히 카바ー하고잇다

▲簡保、民營 新契約推移

	簡易保險 新契約高(千圓)	簡易保險 一件當平均金額(圓)	民營死亡保險 新契約高(千圓)	民營死亡保險 一件當平均金額(圓)
大正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質疑

實疑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今般 小生이 當地에서 雜誌商을 하고저하옵는데 日本內地와 直接取引하는것이 조흘는지요 또都賣店을 下敎하시옵소서(原州郡原州面下洞里 一讀者)

答 直接取引은 保證金、信用等 其他關係로 困難하오니 左記書店에 照會하시요。 京城府本町一丁目 大阪屋號書店內 朝鮮雜誌販賣業組合

問 商品廣告用삐라와型錄을印刷코저하오니 寫眞銅版製造所를 下敎하시오 (黃海線海州驛前 一讀者)

答 京城府大和町二丁目內田寫眞製版所 同慶雲町 光英舍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三八	金銀銅鉛	慶北義城郡玉山面	七月二十五日	京城府御成町 元胤洙
一三三三九	金銀銅	忠北忠州郡參味面 忠州邑	七月二十五日	東京市赤坂區青山南町 德永和光
一三三三〇	金銀銅	慶北義城郡玉山面	七月二十五日	京城府敦岩町 代表者 鄭世容 京城府慶雲町 李吉男 漣川郡積城面 郭成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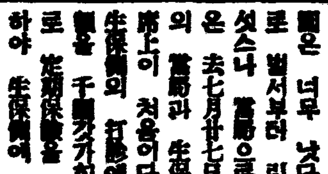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〇一七六	慶北金泉郡大德面 慶南居昌郡高梯面 全北茂朱郡茂豐面	七月二十三日	京城府壽町 朴春琴
七一五〇	忠南保寧郡青蘿面	七月二十四日	東京市下谷區入谷町 奧村茂樹
一三一八七	忠南瑞山郡雲岩面	七月二十四日	東京市芝區田村町 瑞山鑛業株式會社
一三一八三	同郡遷西面	同	同
三三一九六	江原高城郡西面	七月二十四日	京城府櫻井町 代表者 田中節之輔 同漢江通 加藤良房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一一〇	全北扶安郡保安面上西面	七月二十三日	李泰滿任意脫退
八二九八	咸南新興郡下元川面	七月二十四日	林山鑛業株式會社任意脫退
八四六二	同	同	同
八五一五	同	同	同
八五二四	同	同	同
一〇二七四	咸南德源郡豐下面	七月二十二日	小林米男任意脫退

黃昏 (157)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새출발 (三)

저잇지간— 이곳 저곳、해마다 때때로 모혀서、그들은 오늘아침에 나 부른 게시에대하야 이러니 저러니、이야기들을 하고 잇섯다。 글모르는죄은、궁금해서 여러가지로 파고붓기도 하고、글자 나아는 사람은 자랑삼아 자기의의견까지 보태여가며 과장적으로 꾸며대기도하엿다。 그럴중에도 간신히 글자나 부쳐읽는 직공은、무슨 큰면문이나 어더만난듯이 게시전체를 그대루 외여들리라고 군둔한 입을 넘넘그리고 잇섯다。 마치 옛날 서당아이들이 훈장의매를 모면하기 위하야、바람한점만 건들하면 그만 까먹고말만치 가까스루 혀끗헤 발린 글을 위태로히 외여바치듯 이 눈이 커다란 한직공이 눈알을 들들 굴러가며 서투른어조로

「에……우리회사는 여러분의……더욱으로……」 하다가 그뒤가 생각나지안허서 공연히 모다심만 하고 잇는것을、겻해섯든 얼굴 가름한사람이 묵차갓다—

「……여러분이 근면성실히 작업에 종사한 결과로 착착 발전하고잇습니다 다시말할것도업시 회사의성운(盛運)은 오로지 종업원 제군의 건강과 노력에 달린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때에 당하야 우리회사는 여러분의건강—즉 처의행복을 위하야오는 산업이、생업위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기로 하엿습니다、한사람도 빠짐이 업시이에……」

「최대의 무어?……」 하고 얼굴 납작한 사나히— 어데지모르게 남의약점만을 잘 죽시어낼듯한 얄쭉한 사나히가 바쁘게 가래질하듯 떠드는 점심밥알을 튀이며 소리치고는이어 「흥! 해가 서편에서 뜨겟구나……」 하고 그것을 키적은 사나히를 보며 「여보게 그런소리 못기부라자네、그、밋구라지젤이나 한번 보세」 하고 띄웃는다。 키적은 사나히는 경주로서서 엉덩이에 실로 몽치만큼것을마치 사람의머리가리 웅려노코 두발로 보고미를 들고 밋구라지 잡는 시늉을 하는 재주가 잇서서 잇다마를

「에……우리회사는 여러분」도 낫다。 「어쨋던 바다보구 봉일이지……」 납작한 사나히가 이러케 말하엿다。 「아무럼……병이 잇대면 치료해 달래지……안들어주어?……안들어주면 들어줍시사하지」 키보가 바닷다。 「엥히、그러면 또 모욕을 해야지……」 목덜미에 때가 더덕더덕한 덜룽해보이는 사나히가 이러케 말하자 겻해서、 「너 그래、언제 모욕을 해봣니?」 「이놈아、이때(病)때문에 어더 쳐진기가 들리겟니? 바루 목도리한 섬이로구나 하하하…」 「출지는 안흘걸……」 하고 모두를 우서대엿다。 그러나 이러케 웃고 떠드는중에서도 다른날과 달리서 오늘은 무슨일이 닥아오는것갓튼심피를 그들은 늣겻다。 동시에 무슨 비장한 장면까지를 그들은 한번생각하엿다。 몃사람만 모혀서도 못엇어던지 해넘겻가를 엄청난 생각도 나고、무엇이던지 벌려 들어다가 제노코심든지리에 놓아보고 실흔 충동도 낫다。 그러다가 어던사람은 누가 한 히한다면 저놈을 궁둥으로 올라가던니、동네도방에에서라도 올라가던니 하고 왕창한 소리까지 꺼냇다。

이엇다。 수가 겨기도록 웃시 웃기는것 「이사람아 여루 서산에서 뜨라는데 사람이들 것구로 것지 못할거엇나?」 「자아……」 「조선사람은 키가 적어야 재간이 드는법야。하하하……어서 해보게」 「앗다……빗싸게 굴지말고……」 「자아、내가가서 실컹치와 보고미를 가저옴세」 여러사람은 런해 이러케 적은사나히에게 욕여대엇다。 그러나 그는 남이 벗서 하는바람에 되려 비위가 업서저서 비슬비슬 꽁문이를 빼엇다。 그럴판에 키보가 왓다。 덜커 놓호사나히가 오는통에 그들은 키적은 사나히의일을 잡시 이저버린듯하엿다。 그들은 다시 진단에 대한 이애기들을 하엿다。 엇재서 하는 것이며장차 엇더케 되리라는말